

與,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추진...이낙연 “감격스럽다”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 일환...호남 민심잡기 포석 이낙연 “호남, 신재생에너지 시대 주도 여건 갖춰” 김태년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지원 아끼지 않겠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조성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부·울·경 메가시티 등 광역경제권 구축 방안 일환인 동시에 차기 대선주자인 이낙연 대표와 당의 텃밭인 호남권 민심을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이 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등 지도부와 주요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우범기 전북도 부지사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의 시동을 거는 날이다. 3개월 전 송갑석 의원과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것이 가시화되고 본격 시동을 걸게 돼 감격스럽다”고 했다.

이어 “부·울·경 메가시티, 충청 메가시티, 대구·경북 통합 등 각 지자체가 광역경제권 구축에 노력 중이다. 그에 비하면 호남은 큰 도시들이 인접하지 않아서 지자체 통합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는다”라며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송 의원이 호남권 에너지경제공동체를 제안하고,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 등이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호남은 신재생에너지 시

대를 주도할 여건을 골고루 갖췄다. 전북은 새만금, 광주·전남은 한국전력 혁신도시를 가졌다. 광주는 빛그린단지 생산기지, 전남은 최대 풍력단지를 안고 있다”라며 “이런 여건으로 에너지공동체 구상은 성공 가능성이 한국에서 가장 높다”라고 기대했다.

나아가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플랫폼기업) 미래 구상과 에너지공동체 구상이 실현되면 몇 년 전 세계리더스포럼에서 나온 동북아 슈퍼그리드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라며 “몽골, 중국, 한국, 일본을 연결하는 에너지 네트워크에서 호남이 중심기지가 될 날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정은 기후위기에 그린뉴딜로 대응,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선 지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남이 그린뉴딜과 지역균형 뉴딜의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호남 초광역권 에너지경제공동체 ‘호남RE300’ 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한다”라며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 에너지경제공동체 용역 입찰에서는 ‘기술과 가치’가 선정됐다. 예산은 1억9000만원이며 민주당구원,

전남, 전북, 광주가 분담해 오는 5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취재본부 김윤호 기자

주호영, 백신 접종 준비 상황 점검...“1호 접종자 누구” 질문도

국민의힘, 내일 접종 앞두고 코로나 중앙접종센터 방문 “1호 특정한 아닌 동시 접종”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준비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준비가 잘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다만 (백신을 접종하는) 65세 기준이 한 시설에서 구분되는 점에 대한 해소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심이 모이는 1호 접종자에 대해서는 “물어봤는데 동시에 5개 시설에서 접종하면서 우연히 제일 빨리 접종되는 사람이 (1호 접종자가) 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백신접종 중앙예방접종센터 현장방문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코로나 특위위원과 나왔는데 설명을 잘 들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장 점검에는 국민의힘 측에서 이종배 정책위 의장, 신상진 국민의힘 코로나19 대책특위위원장, 김미애 비상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중앙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백신접종에 사용될 주사를 살피고 있다.

대책위원, 서정숙 의원 등이 함께 했고 국립중앙의료원에서는 정기현 원장이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서울시 예방접종센터 수, 하루 접종자 수, 접종 동선 및 방역 대책, 병동시설 준비 여부 등을 질문하고 중앙의료원 관계자로부터 접종 계획을 들었다. 브리핑 후에는 백신 냉동고와 대기실, 접종실, 관찰실 등 현장을 점검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히 1호 접종자에

관심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나라 1호 접종자 누구인가”라며 “외국은 상징적인 분들이나 최고령자, 국가지도자가 하는데 우리나라 1호를 (사람들이) 궁금해 한다. 이대로면 그냥 5개 센터에서 동시에 시작하는데 우연히 가장 빨리 맞는 사람이 1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원장은 “순서대로 하지 특별하게는 (정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종배 정책위 의장은 “두 번 접종

하는데 전에는 3주 후에 접종한다고 했는데 2개월 후에 접종하는 걸로 됐다. 외국도 그렇게 하나”라고 물었다.

김미애 비대위원은 “65세 이상도 위험할거 같은데 27일부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나”라며 “굳이 이렇게 치료종사자만 (화이자를 접종하고) 일반환자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으로) 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를 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했다. 화이자는 3주 간격이고 모더나는 미국에서 4주 간격으로 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4~12주로 됐다”며 “아스트라제네카 전문가가 논의하니까 8주가 가장 효과 높다고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일반적으로 화이자 백신이 안전성과 면역성이 높은 고급백신으로 인식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닌 걸로 인식돼 있는데 하필 코로나 의료종사자사가 좋은 것을 써서 불안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다”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고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뉴스스

소병철, ‘법무부 중수청 설치 등 혁신 과제 대응 기구 설치’ 주문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진행된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사법구조 개편의 효율적 작동을 점검·보완하기 위한 법무부 주도의 추진 기구설치가 시급히 필요함을 강조하고 제안했다.

공수처 출범·검경수사권 조정·국가수사본부 발족 등 70년만에 맞는 형사사법구조의 대변혁을 맞아, 법무부장관으로서 특별한 이행 점검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소 의원의 분석이다.

지난 인사청문회에서도 소의원은 “형사사법구조 대변혁에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상황까지 더해졌다”며, “정부의 법치행정과 인권옹호의 주무장관인 법무부장관은, 새로운 법치행정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변화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선도하여야

한다”는 점을 당부한 바 있다.

소 의원은 “중수청 설치 논의는 검찰 개혁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 법무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은 검사들에게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원하고 있다”면서 “검사는 수사의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 옹호를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이며 “법률전문가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검찰의 공소제기·유지 권한의 충실한 수행을 강화해야 한다.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한다거나 빼앗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변화에 맞추어 검사 권한 행사에 초점을 옮겨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학계·변호사단체 및 공수처·검·경 등 유관기관을 포함한 기구를 신속히 발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